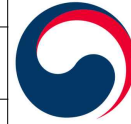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3. 30.(월) 12:00
배포일시	2020. 3. 30.(월) 08:0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실장: 최 바 울(042-366-7301) 사무관: 박 시 내(042-366-7302)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 발간 “저출산·고령 사회의 현황과 미래”

- 통계개발원(SRI, 원장 전영일)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다양한 분야의 통계 분석 계간지인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를 발간한다. 특히 이 번호는 “저출산·고령 사회의 현황과 미래”의 인구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 주요 분석내용은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동향과 특징”, “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무자녀 가구”, “사망률 변화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동향과 특징”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혼인력 변동의 동향과 특징을 바탕으로 코호트(cohort) 및 기간(period)별 생애에 걸친 혼인 이행 과정의 변화를 분석했다.
 - “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무자녀 가구”에서는 결혼에서 첫 출산에 이르는 생애과정과 무자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가족가치관, 미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 “사망률 변화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한 사망률의 기여도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았으며, 이 밖에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혁신적으로 연계·활용한 연구결과들이 수록되었다.
-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 주요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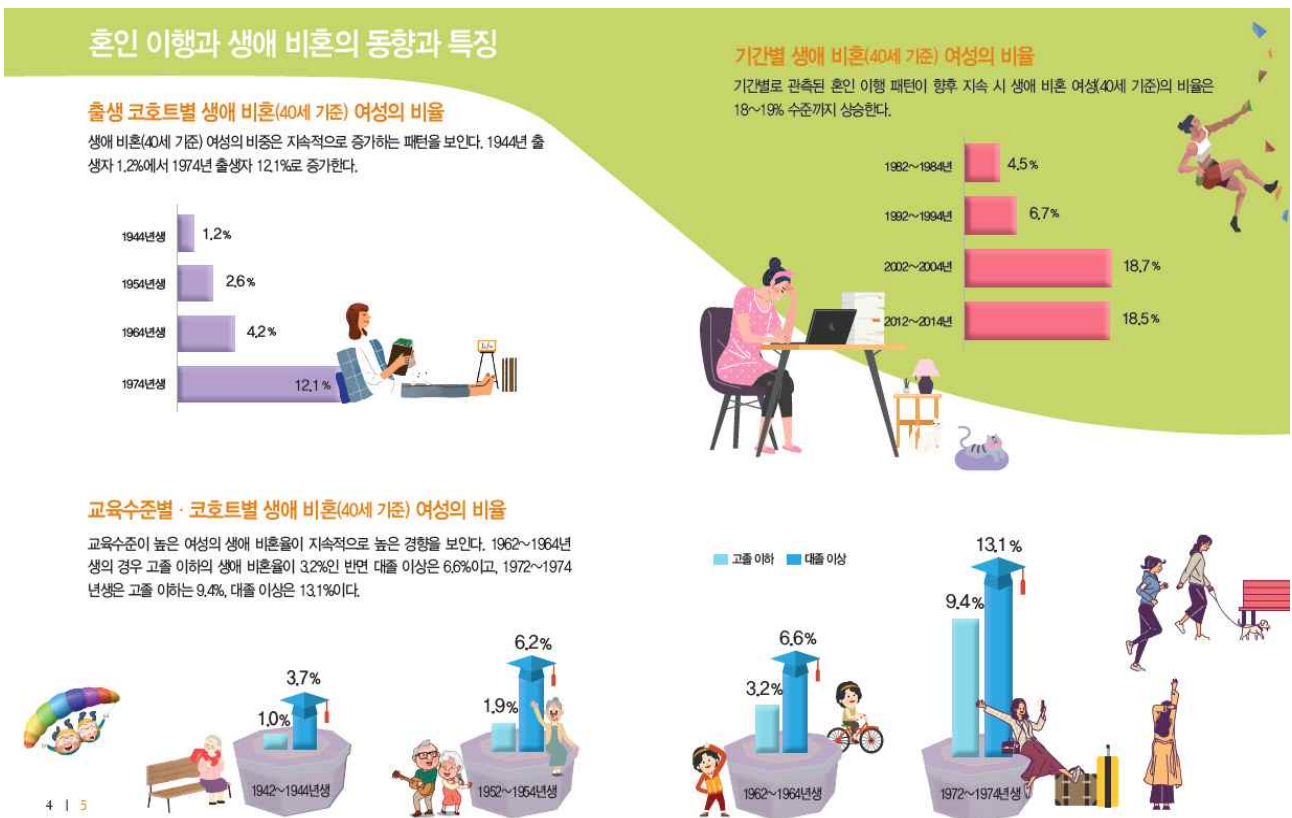
이슈분석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동향과 특징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보편혼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생애에 걸친 혼인 이행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행된 급격한 인구변동은 생애에 걸친 혼인 이행 패턴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 전반적으로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생애 비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코호트 혼인 생명표 분석 결과는 혼인 생애를 대체로 마무리한 1974년 출생 여성의 경우 40세까지 비혼 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이 이미 12.1%에 이른다. 더욱이 현재까지 혼인 생애를 마무리하지 못한 출생 코호트를 포괄하는 기간 생명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2014년 기간의 연령별 혼인 이행 패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40세 기준 생애 비혼 여성의 비율은 18~19%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 수준별 혼인 이행 분석은 일관되게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대졸 이상 여성의 생애 비혼율('72~'74년생 13.1%)이 고졸 이하 여성('72~'74년생 9.4%)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생애 비혼 현상에서 관측되는 교육 수준별 격차보다는 출생 코호트별 격차가 더욱 크게 관측된다.

【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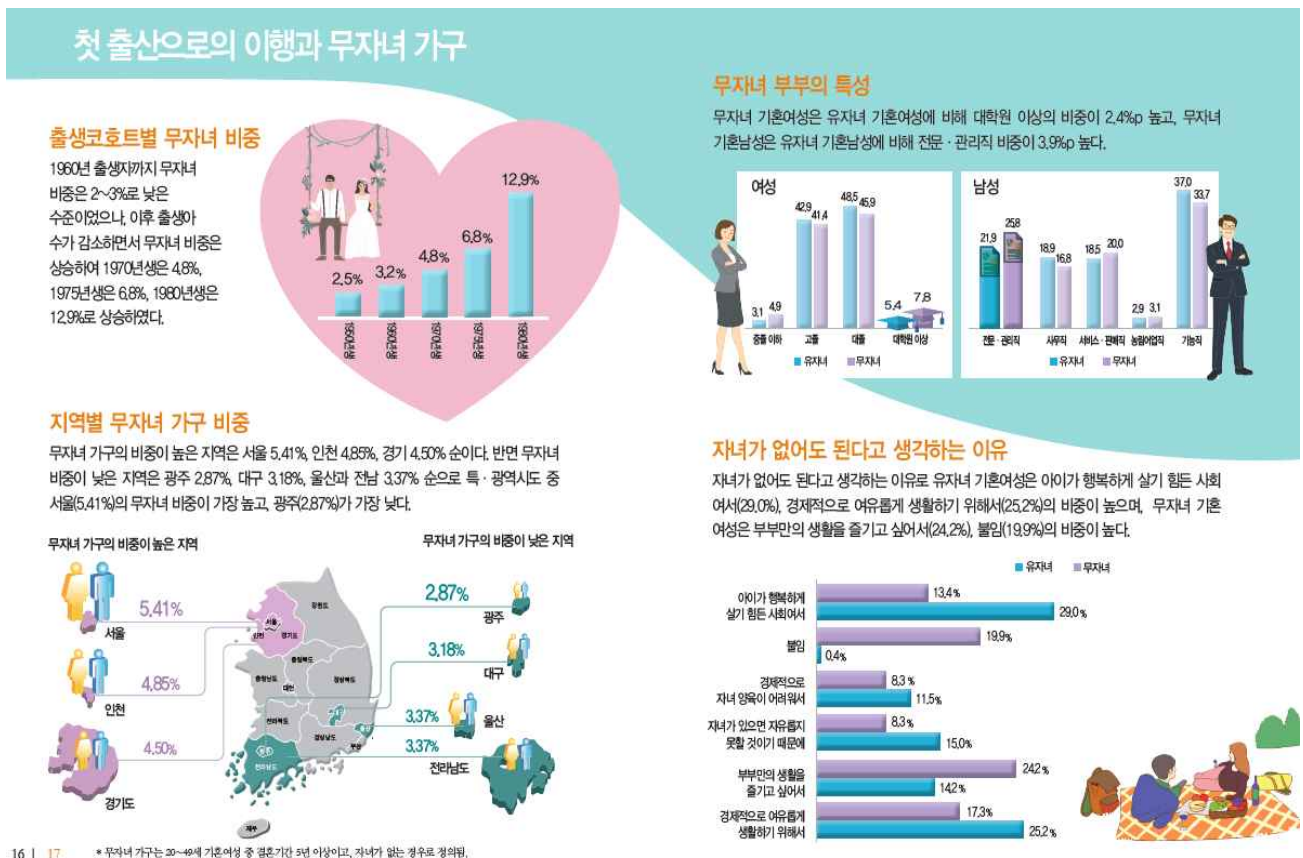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2015년)

박시내,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저출산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다.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글은 생애 과정 중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여기에는 청년층의 장기 고용불황, 점점 높아지는 주거비, 높은 자녀 양육비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행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었지만,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결혼은 수용하나 출산은 선택으로 여기는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였다(1970년생 4.8%, 1975년생 6.8%, 1980년생 12.9%).
- 무자녀 기혼여성의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나 경제적 요인보다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 역할 등 가족가치관 요인이 향후 출산 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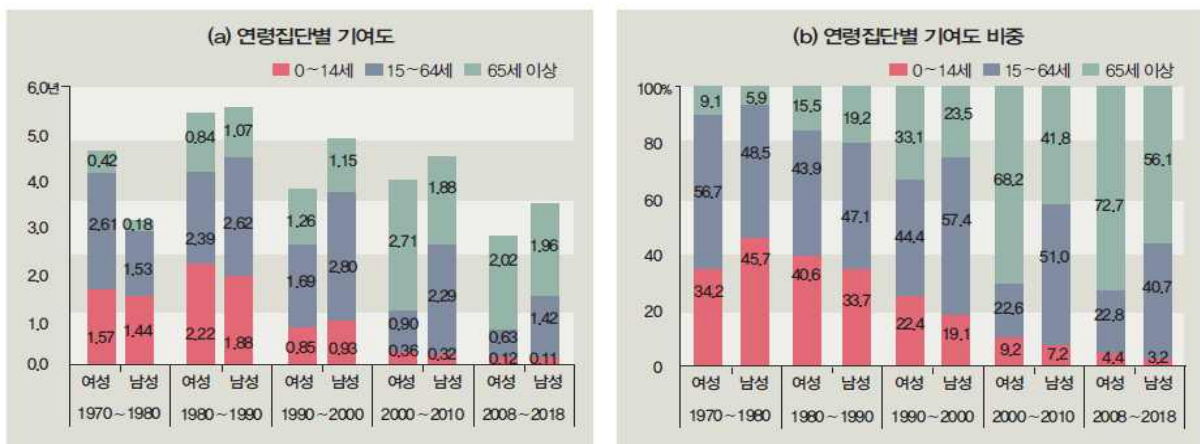
16 | 17 * 무자녀 가구는 20~49세 기혼여성 중 결혼기간 5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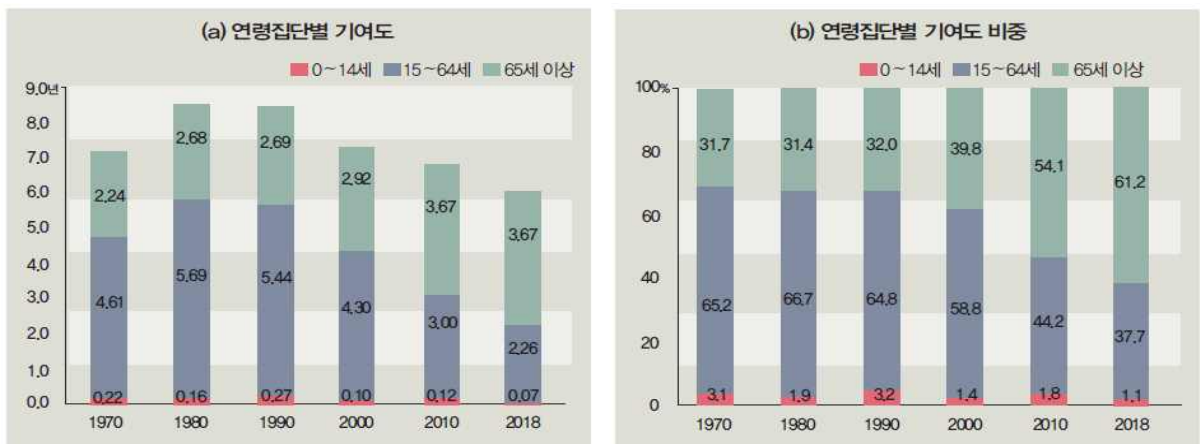
김순영,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

-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대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가해왔다. 기대수명은 사망률의 중요한 척도로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망률 감소의 결과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사망률 개선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기대수명은 1970년 남자 58.7세, 여자 65.8세에서 2018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약 반 세기동안 20년 정도 증가하였다.
- 사망률의 변화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일정한 기간동안의 우리나라 남녀 기대수명의 변화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와 특정시점의 남녀 기대수명 차이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사망률이 높았을 때인 1990년대 이전에는 영·유아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중·장년 및 노년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성별 기대수명 변화에 기여하는 연령집단별 기여도 및 비중 】



【 남녀 기대수명 차이에 기여하는 연령집단별 기여도 및 비중 】



※ 자세한 분석결과와는 책자 또는 통계개발원(SRI)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